

1월 25일 화요일 긴급 청소년 성토대회 기록

어쓰 : 정말 긴급하게 저번 주말에 잡혔다. 사회도 급하게 맡아서, 준비가 많이 미흡한데 잘 봐주면 좋겠다. 간단하게 소개 정도 하고 시작하자. 저는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번에 성토대회를 연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서울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쓰라고 한다.

김\*\* : 수원에서 중학생 생활하는 김성호라고 한다.

공현 : 기록하려고 왔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서울본부 공현이다.

한날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한날이다. 청소년은 아닌데 가끔 자의적 판단으로 언론에서 청소년으로 보도가 되곤 한다. 반갑다.

이\*\* : 전북 무주에서 왔다. 중학교 3학년 이\*\*이라고 한다.

유\*\* : 서울 고등학교 재학 중. 고3 되는 유\*\*이다.

전\*\* : 일산 고등학교 2학년 전\*\*이다.

영\*\* : 동성애자인권연대 청소년 자긍심팀 영\*\*라고 한다.

김\*\* : 의정부에서 고등학교 2학년인 김\*\*이다.

박\*\* : 부천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박\*\*이라고 한다.

이\*\* : 한성여고 다니는 이\*\*이라고 한다.

고\*\* : 인권교육센터 들에서 인턴하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 고\*\*이라고 한다.

다영 : 이제 올해 19살이 되는 아주 멀리 멀리 동두천에서 온 다영이라고 한다.

뚝코 : 저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뚝코라고 한다.

어쓰 : 기자가 생각보다 많이 와주셨는데 감사드린다. 몇 분이 아직 도착 못하셨지만 시작 하겠다. 뭐 때문에 오신 건지는 다들 아실 거다. 경기도에서는 얼마 전에 학생인권조례 통과. 서울도 작년부터 학생인권조례 만들려는 운동들이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 법이 바뀌어버리면 조례가 효력이 없게 된다. 그래서 개악안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다 교과부에서 작년부터 하겠다 하겠다 하다가 얼마 전에 실제로 발표했다. 청소년들 모여서 의견을 말하면서 교과부 왜 그러냐고 얘기해보는 자리이다. 초중등교육법 바뀌는 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도구

나 손 등을 직접적 때리는 체벌은 안 되지만 대신 교육적 훈육을 위해 간접적 체벌은 허용한다는 내용. 예를 들어 때리는 건 아니지만 엎드려 뺨쳐 오리걸음 이런 건 된다는 것. 또 하나는 학교장,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인권을 제한하는 학칙을 만들 수 있는 거다. 대신에 학칙을 만드는데 학생들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말하지만, 안 될 거 다들 안다. 마지막으로 출석정지 제도라고 해서 정확과 비슷한 새로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특별교육이수 등 받아도 다른 곳에서 교육이수 같은 걸 받고 오면 그 기간 동안 출석 인정이 됐는데 출석정지 제도라고 해서 그렇게 학교에 못 나온 기간 전부를 무단 결석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도 징계 같은 게 찍힌 애들 맘에 안 드는 애들을 내보내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 했는데, 이번에 출석정지 제도로 전부 무단결석으로 처리된다고 하면 그게 심해질 거라는 우려가 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씀 말씀하시면 좋을 거 같은데. 앞에 나와서 얘기하기보다는 앉아서 얘기하는 게 편할 것 같다. 발언하실 때 여기 이 자리에 기꺼이 와주신 기자 분들을 위해서 자기 이름이랑 학교 정도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름 싫다고 하면 발언하실 때 사진, 이름 안 나가면 좋겠다고 하고 시작하시면 된다.

김\*\* : 학생을 통제하는 대상으로 보는 간접체벌이 직접체벌과 뭐가 다른 건지 이주호 장관은 설명해야 한다.

뚝코 : 그동안 계속 맞아왔다. 체벌금지 시행되고 학생들 때리는 거는 반인권적이다, 안된다는 인식이 퍼져 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학생들을 훈육하고, 행동을 제한하고, 억지로 시키고 하는 인식은 변하지 않은 것 같다. 어쨌든 간접 체벌로 하기 싫은 것 괴로운 것을 강제로 시킨다는 것이다. 과연 어디까지가 체벌이냐 하는 건 그런 부분부터 얘기해야 한다.

어쓰 : 새로 온 분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문\*\* : 노원에서 중학교 다니는 문\*\*이라고 한다.

심\*\* : 부천 소사고등학교 심\*\*다.

이창준 : 부천 소사고등학교 이\*\*이라고 한다.

김\*\* : 지금 간접체벌 관련 말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심하게 몇 백대 맞은 적 없어서 그래서 왜 간접체벌 그런 걸로 뺨뺨이 돌리나 싶다. 뭐 체벌은 다 금지되어야 하지만, 오리걸음 시키고 토끼뽀를 하는지 정말 힘들다.

이\*\* : 간접체벌에 대해서 말해보겠다. 정말 백번도 더 말했는데, 아니 백번은 좀 오버인데 정말 많이 말해왔다. 우리가 학생인권조례안이 통과가 됐다. 그 이후로 언론에서 많이 말하고 있다. 인권조례안 만들어지고 학생들이 선생님 뭘 찍는다 인권을 오남용해서 교권을 침해한다 이러면서 교권침해 사례를 많이 얘기하고 있다. 사실 저희는 지금까지 인권다운 인권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데, 갑작스럽게 조례를 통해 얻은 거다. 지금 이거는 어른

들이 좀 명확히 해주셔야 할 거 같다. 저희는 이걸 처음 받아보는데 갑작스레 주어져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 인권다운 인권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존중받고 실행해야 하는지. 과도기적 성격이고 예방주사라고 생각한다. 예방주사 맞고 열이 나지만,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가라앉히느냐, 그게 예방접종 맞고난 후 중요한 거다. 그게 지금 이 시기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를 억지로 가라앉히려고 하기보다 선생님들 학생들 학부모님들까지 조화롭게 세 부분에서 같이 의논하면서 가장 이렇게 지혜롭게 해결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어쓰 : 제가 진행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데 좀 증언부연 하고 있는 것 같다. 정리해가면서 주제별로 말하자. 좀 더 이야기해보자.

한날 : 저는 청소년인권활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학생 분들이 많은 거 같다. 왜 왔는지 궁금하다. 편하게 자기가 왜 왔는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심\*\* : 저는 부천 소사고등학교 다니는 심\*\*라는 학생이다. 저희 학교에서는 학교 규칙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개정하는데 공청회 후에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에서 학생 참관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해서 시위를 했다. 여기에 온 이유는 저희 학교 현황을 많이 알리려고 왔다. 학생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학생 표현의 자유가 먼저 인정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한다.

최\*\* : 저는 문자 받고 왔는데... 그 아까 전에 개정 심의 위원회 거부당하셨다고 했는데 저희는 오라고 하긴 했다. 저희는 학생 2명 갔는데 다 학부모랑 선생님이시고 학생은 저랑 부회장 2명이었는데 솔직히 가서 아무리 말해봐야 들었다. 조용히 해라. 밥 먹을 시간이다. 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끝까지 좀 생떼 부리면서 이야기하긴 했는데 이야기한 것도 거기서는 받아들이는 척 하면서 운영위 가보니까 하나도 받아들여진 게 없었다. 아마도 밥이 급했나 보다. 그래서 별로 개정 위원회에 실효성은 없는 거 같다.

또 표현의 자유 이야기 하셨는데 저희 학교에서도. 개정이 저희 학생들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니까 학생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학생회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들이랑 체벌 실태 비판하는 학생회 신문 발행하려고 했는데 그 신문을 저희가 독단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담당 선생님이랑 다 협의해서 발행만 남은 상태였는데 그 신문을 교장 선생님이 안돼, 라는 한 마디로 모든 걸 백지화시켜버렸다. 저는 나름대로 언론도 타고 그랬는데도 하나도 바뀌는 게 없더라. 지나가다 만난 부장 선생님은 계속 이딴 식으로 할 거냐. 그래서 이딴 식이 뭔데요? 하니까 서명운동이 잘못됐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했다. 어떤 절차상 문제냐. 하니까 학년반 번호 이름 하고 사인하는 게 문제라고 하더라. 집주소랑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면서. 그래서 알았다고 갔었다.

그렇게 해서 가다보니까 언론과 인터뷰 한 다음에 다음 메인인가 올라와서 나름 많이 알려졌다. 이 정도면 학교에서 연락 오지 않겠나 적어도 선생님이 연락해서 좋게 해결해보자 말씀하실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건 그냥 기대였더라. 그런 대화를 먼저 요청하실 분들이면 그런 식으로 학생들을 막지도 않았을 거다. 그래서 제가 부장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 면담하고 싶다 했는데, 칩거 중이시더라. 그 뒤로 본 적이 없다. 병가 내시고 출장 가시고 병가 내시고... 본 적이 없다. 교감 선생님과 얘기하고 싶다고 하니까 답장이 왔다. 니 식대

로 해봐라... 면담 요청했는데 니 식대로 하라면서 문자를 답이 없더라.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마스크에 알려줘도 학교는 변하는 게 없다.

이런 일이 방학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일 이뤄진 거라서 학생들이 많이 알질 못했다. 그래서 방학 중에 방과후 듣는 아이들이 완전 사실이 왜곡돼서 저를 욕했다. 무슨 소리냐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은 그런 식으로 제가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었다. 실추할 이미지는 있는지... 의문이고. 체벌한 선생님들이 우리를 위했다 그렇게 말하시는데 우리를 위한 교장 선생님께서 그렇게 칩거하시고 학생들을 생까시고 니 식대로 하라고 이딴 식으로 할 거냐고 이렇게 말하시는 게 의문이고. 학교는 마스크 타든 안 타든 바뀌는 게 없다... 그냥 저런 애가 졸업하길 기다리는 그런 거? 그래서 졸업식 때 제가 답사 할 때 한 마디 할까 생각중인데 답사 시켜줄지... 고민이긴 한데. 별로 바뀌는 게 없다.

이\*\* : 저희는 직접 교장 선생님 면담을 했다. 사건이 많이 터져서. 좋은 찬스인 줄 알고 가서 면담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40분 듣기만 했다. 교장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저희는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많은 선생님들이 오시더라. 교장선생님과 대화가 아니고 학교가 막으려고 시도하는구나. 해서 저희가 잘못된 게 없어서 당당하게 가서 대화를 시도했는데 교무부장 선생님이 악법도 법이다, 니네가 시위 하는 건 교칙에 제한돼있다. 교칙에 어긋나니까 어쨌든 법을 어긴 것이다. 교칙상 보면 퇴학도 가능하다. 이러면서 협박을 하셨다. 그때는 너무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듣고 있는 상황이라 말을 못했다.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은 실정법에서나 가능한 말이다. 자연법이란 건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얻는 권리 아닌가. 표현의 자유도 자연법. 근데 표현의 자유 안에 또 시위가 있고. 저는 엄연한 자연법이라고 생각한다.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이 과연 자연법에도 적용될까?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교과서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등등 경우에만 자연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세가지를 어긴 적이 없다. 교장 선생님 교무부장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었다. 우리가 하는 건 정당하다. 그런데 불려가서 일방적으로 50분 동안 듣기만 했다. 교장 선생님이 열린 분이 아니라면 면담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저희는 그래서 한 두세 번 하고서도 성과가 없었어요.

체벌 관련 얘기한다고 하다가 다른 얘기로 쏘는데. 학교가 총 12년 교육 과정 거친다. 저는 12년이 절대 짧은 게 아니라 정말 길다고 생각하는데. 체벌 같은 단시간으로 교육 효과를 내려고 하는 건 정말 큰 오류라고 생각한다. 힘들어도 계속 아이들과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설득을 할 수 있고 잘못을 뉘우친다면 그게 교화고 학생의 인권이나 선생님 교권이 동시에 상승한다. 체벌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가 그거다. 단기간에 효과를 내려는 건 무의미하다. 12년 과정을 무시하고 바로 하려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쓰 : 와서 속 시원하게 얘기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1시쯤에는 끝내야 한다. 다른 분들 말씀하실 수 있게 정리해서 짧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 더 하고 싶은 말씀 있는 분들 있는 거 같으니까 좀 더 들어보겠다.

김\*\* : 저희 의정부고등학교에서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영향으로 개정하려고 했는데 형식적으로만 해서 학생 참여가 안 됐다. 그러고 나서 기말고사 2주 전에 교칙 개정한 게 발표됐다. 일방적으로 교칙이 개정된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화가 났는데, 그때가 기말고사

전이라 아무런 대응도 못했고 기말고사 후에는 의욕도 없고 방법도 생각을 못해서 아무것도 못했다. 정말 죄송하다.

어쓰 : 죄송할 것까지야;

김\*\* : 이렇게 학생인권이 무시당하는 와중에서 초중등교육법인가 뭔가 말도 안 되는 게 개정된다는데 참 얹친 데 덮친 격이다. 그래서 저는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김\*\* : 아까 계속 교장 이야기 해서 교장 선생님은 웃긴 거 같다. 자기가 자기 입맛대로 할 때 악법적으로 할 때는 힘이 강하신 본인데 인권을 존중하려고 할 때는 힘이 없는 분이 된다. 제가 교장 선생님과 대화를 참 많이 했다. 학교 학생회장이 교장 선생님과 대화를 못한다. 무서워서. 그래서 난 학생회장도 아닌데 많이 얘기를 했다. 제가 가서 저 선생님이 때려요 이르기도 하고. 뭐 바꿔주세요, 하기도 하는데. 학교 수업 같은 거 지루하다 준비물 지원해달라 하면 아이고 우리 학생 공부 열심히 하네 하며 참 잘해주신다. 그런데 두발규제 이런 말만 하면 그건 학부모 위원들하고 선생님들과 논의해야 해서 말해주기 힘들다. 교장선생님은 힘이 없다 말하신다. 결국 제가 학교에서 확성기 들고 그랬는데... 교과부가 교장선생님이랑 친한 것 같다. 교장 선생님을 학교 최고로 만들려는 건가 생각이 들고. 지금도 교장 선생님 힘 충분히 강하다. 예를 들어 축제 재밌게 해보고 싶었는데 학생회랑 힘 모아서 아무리 하자고 해도 안 듣던데... 교장 선생님이 축제 한 번 열어야지 하니까 축제 바로 열리고 그러더라.

뚝코 : 학교에서 적극 해보신 분들인 오셨는데... 저는 학교에서 도망친 케이스. 19살인데 고3이어야 하는데 그냥 19살이다. 학교를 고등학교 1학기 끝내고 자퇴했다. 제가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래서 학교에 8시까지 못 나가고 11시까지 야자 하는 것도 너무 싫어서 나왔다.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다른 애들은 건디는데 넌 왜 못 건디느냐고... 왜 나는 그렇게 잘못된 것에 문제제기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나왔을까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못하는 내가 이상한 건 줄 알았다. 사실 사람이 하루 8시간은 자야 하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게 학교이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게 정당하다는 걸 깨달았다.

영상고 : 저는 서울 영상고등학교라고 실업계를 다닌다. 인권에 대해 잘 몰라서 들으려고 왔는데 계속 마스크 얘기하시고 그래서 한 마디 하려고 한다.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친구들과 인권조례가 생기고 생기려고 하면서 동영상을 저희가 보게 됐는데. 저희가 영상 배우는 학교이다보니 영상 출처를 따라가보게 됐다. 근데 영상 출처가 경기도나 서울이 아닌 쪽에서 나온 거고 다 날짜도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인권발휘 전에 찍힌 동영상 가지고 계속 기사를 올리고 동영상 첨부해서 올리더라. 참 그렇고... 교장 독재 이야기하시는데. 저희 학교 교장 선생님도 많이 독재적이셔서. 어떤 걸 하나면 작년 졸업한 형들이 자기들이 수업 시수를 못 채워서 졸업 못 시키겠다고 해서 졸업을 안 시켰다. 그런데 시수를 다 채우고 그 뒤에 졸업을 했다. 근데 그런 사례를 들고 자기 힘을 과시하며 저희가 학생 모임 가질 때 너희도 이럴 수 있으니 조심해라. 그리고 학칙 안 따르면 너희들 유급시키겠다. 이게 학교 최초로, 유급당하고 싶지 않으면 니네가 잘 해라, 얘기하더라. 정말 화날 수밖에 없다. 저희 선생님

도 그렇고... 인사 잘하라고 항상 요구한다. 그래서 저희는 교장 선생님한테 해맑게 인사 하면 무시하고 지나간다. 시키니까 하는데, 받아주지도 않으시는지 참 의문이고, 초중등법 시행령에 관해서 독재가 심하게 된다면 특히나 우리 학교가 사립고등학교고 재단이 교회라서.. 지금도 독재적 독단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법으로까지 된다면 학생들이 정말 숨 쉴 공간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다영 : 학교에서 받은 체벌 같은 거 곱씹으며 생각해봤다. 체벌이 되게 보통 어른 분들도 그렇고 당연히 뭐 사랑의 매고 너네 잘 되기 위해서 가슴 아픈데 어쩔 수 없이 가해지는 체벌이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 말라고 제가 이런 활동하는 거 아시면 그런 얘기하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더라. 체벌을 되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슴 아프지만 행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학교 다녔을 때 받은 체벌을 생각해보면 저는 진짜 절대 한 번도 제가 뭐 체벌을 받아서 갑자기 뭔가 깨달음을 얻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고 체벌에 대해서 나중에 너무 잘 되어서 저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학교에서 이런 교사도 있었다. 감정기복이 너무 심해서 집에서 안 좋은 일 있었다든가 스트레스 받으면 때리는 강도 빈도 세지고 체벌을 자기 스트레스 해소로 보는 교사들도 되게 많았다. 그래서 되게 밖에서 뭔가 체벌을 너네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이뤄지는 거야 할 때 보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경기장에서 경마하는 말이 생각났다. 말 빨리 달리라고 매질을 한다. 착착착. 기수가. 그 기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말이 달리게 착착착 채찍질. 이 장면을 생각하니까 학교가 생각났다. 체벌이 입시경쟁 심화시키기 위해서... 교사들이 저희에게 바라는 게 뭐랄까 입시와 관련해서... 숙제 같은 거 영어 단어 몇 개 외우기. 제가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다 외울 수 없는데 틀린 개수대로 때리거나 그런 걸 보면서 경마장의 말이 생각이 났다.

박\*\* : 전지금 환경 자체가 교사이신 어머니도 계시고 학원 선생님인 고모도 있고 교수이신 분도 친척 중에 있고. 우리 집안이 좋은 가정 환경이라고 생각했다. 우리 학교는 사립이고 미션스쿨이라서 좋은 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다른 학교를 보니까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 같았다. 제가 받는 거만 좋은 거고 다른 사람들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간접체벌이라고 입에 올리는 거 자체가 마음이 아프다. 체벌을 하는 게, 선생님들의 자격 이런 걸 논하진 않겠지만, 체벌하는 거 자체가 마치 강아지를 기르는 듯이 강아지가 땅 하면 웅크리는 걸 가르칠 때도 안 하면 겁주고 하면 잘 한다고 밥을 주고. 안 하면 겁주고 하면 밥 주고 이런 식이다. 저희도 그런 거 같은 거 같다. 머리를 잘 안 다듬으면 겁주고. 잘 하면 피하게 해주고. 이런 게 좀 약간 너무 저희를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 마치 너희는 미성년자니까. 주체적 생각을 갖지 못하고 배울 게 더 많다고 여기시니까 저희를 짐승처럼 대하시는 거 같아서 짜증이 나는 면도 있고. 학교나 가정에서 원하는 게 성실성인데, 성실하지 못해서 때리는 거고 성실해지게 한다고 때리는 건데, 그 기준이 뭔지... 정해져 있긴 한 건지. 선생님들이나 가정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게 아닌지. 그분들께서 인간이기 때문에 때리시다가 감정 절제를 잘 못해서 더 때릴 수도 있고 더 악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벌권을, 학생이 말려도 듣지도 않고 다른 교사가 말릴 수도 없게 하고. 교사 분들이 통제권이나 권력남용이 있을 수도 있다. 그걸 막는 조례라는 법이 세워졌는데도 상위법으로 그걸 또 다시 풀어준다고 하면... 그분들이 사신 사회와 우리가 살아갈 사회가 다른 것도 분명한데 너무 인습으로 강요하는 거 아닌지... 선진화시킨다는 명문 하에 학

생인권조례를 되돌리는 일을 하신 건 너무 아니라고 생각하고 건의하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있고 참가를 해도 그걸 안 듣는 어른들... 소통이 절실하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지향해서 대립이 생긴다.

어쓰 : 체벌 얘기 해주셔서 말씀드리자면, 직접 체벌, 간접 체벌 말들은 사실 이번에 바꿀 때 교과부에서 발명해낸 말이다. 원래 그냥 체벌이면 체벌이지 체벌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들어가면서 교과부에서 만들어낸 것. 때리는 건 직접 체벌, 기함 주는 건 간접 체벌 이렇게 하면서, 체벌 금지나 학생인권조례의 거는 직접 체벌 뿐이고 간접 체벌은 허용해야 한다... 그런 꼼수가 숨겨져 있는 말인 것 같다. 그런 말 쓰는 거 자체가 마음 아프고 재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간접 체벌이라는 말보다는 기함이라든가 얼차려 등 우리가 쓰는 그런 말로 대신 하는 것도 좋을 거 같고.

얘기 나온 김에 저희가 오늘 개악안에 반대하는 성토대회인데 슬슬 그쪽 얘기로 다시 가보자. 아까 얘기한 거 말고도 학칙서약식이라고 학칙 준수한다고 서약하는 것도 이번 방안에 포함되어 있고 하다.

문\*\* : 저 박\*\*님 말 동감한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저는 생긴 게 공부하게 생긴 애라고 그래야 하나? 그래서 이쁨 받았다. 때문에 그 전까진 잘 못 느꼈다. 직접 체벌 간접 체벌 이런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다. 저 같이 잘 모르는 애들이 되게 많다. 저희 또래만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 할 거 같다.

전\*\* : 저희는 학생인권조례 생기고 우리한테 의견 물어보고 했다? 학생들이 잘 모른다. 인권에 대해서, 설문지가 나가도 대충 적거나 대충 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다. 공부 잘 하는 애들은 학생인권조례 필요 없고 자기가 좋은 대학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하위권... 좀 노는 애들은 그런 건 상관없이 놓고 싶은 마음에 관심이 없다. 저는 중간이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좀 많이 있다. 학생들이 관심 많이 가지려면 의식 있는 교사들이 그런 걸 말해야 하는데 교육시키고, 저희 담임 선생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그냥 학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성공하는 걸 하려고 한다. 그 선생님이 공부 잘 하는 애들한테는 존경하는 선생님이 될 수 있지만 저한테는 존경 그런 마음이 없고 입시에 찌든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공부 잘하는 애들만 생각하지 말고 중간 애들과 노는 애들도 생각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교실이 이뤄지면 좋겠다.

다영 : 교장 재량권 더 더 주고 교장이 마음대로 온갖 학생인권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게 엄청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계속 만나왔던 교장 교감 학교 이런 거 생각하면 그렇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교직 현장 경력 갖고 있는데 학생인권 잘 알지 않냐, 그게 왜 위험한 일이나 생각하시는데, 되게 위험한 일이다.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들은, 저희 학교 교장도 그랬다. 학생인권 관심 없고, 자기도 교직생활하면서 애들 몇십년 뻘는데, 승진승진하다가 어쩌다 보니 교장이 된 거지 학생인권 잘 알아서 교장이 된 게 아니다. 예가 되게 극단적이긴 하지만, 범법자한테 법 만드는 일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한다. 교장들이 학생인권 잘 알 거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사라지면 좋겠다.

이\*\* : 아무리 좋은 방안 대안 많이 말씀해주셔도 결국엔 나무가 뿌리가 썩으면 줄기랑 잎

이나 열매가 아무리 이쁘게 열려도 결국 빨리 시들고 나무도 빨리 죽는다. 가장 근본적인 걸 뜯어고쳐야 하지 않나. 근본적인 거 교육의 틀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과부에서 낸 몇 가지 제안들이 취약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교육 틀이 바뀌어야 한다. 입시제도 자체를 뜯어 고쳐야 한다. 학생들이 아침에 해를 보면서 등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겨울 같은 때는 등교할 때 많이 어둡다. 어두운 걸 보고 학교 가면 저도 어두워진다. 아침 등교 시간 좀 늦추고 해를 보면서 학교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입시제도를 바꾸기 위해 학교만의 특성을 살릴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학원 이런 걸 옹호하는 건 아닌데 맘만 먹으면 국영수는 학교에서 풀로 자고 학원에서 배울 수 있다. 정규수업 국영수 사탐 과탐 반으로 줄이고 오후에는 학생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학생들끼리 책을 읽고 토론을 한다거나 아니면 국토 순례를 한다거나... 이런 교육을 하면 학생인권 인식이 분명히 바뀔 것이다. 아무리 하소연해도 못 알아듣는 애들이 많은데, 이러느니식으로 해야 인식이 바뀔 것이다. 그러면 학생의 행동이 바뀌고, 학생의 행동이 바뀌면 학교가 바뀌고, 학교가 바뀌면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뀐다.

김\*\* : 저는 천안에서 온 고등학생 김\*\*이라고 한다. 간접체벌이 구별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학생들 체벌 입고 엎드려 뺨쳐 하면 모욕적. 그리고 학교에서 이런 체벌. 친구들끼리 서로 박치기 시키거나 자기 주먹 들어서 때리게 하는 거 시키곤 했다. 간접체벌도 모욕적이라고 생각하고 직접 간접 나누는 거 되게 의미 없다.

교장독재도, 선생님이 신이 아니지 않은가. 학생이 뭘 잘못했는지 선생님이 결정하고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친구가 수업시간에 떠들었다고 수행평가 점수를 깎았다. 근데 수업시간 중에 한 마디도 안했다. 선생님이 잘못 아신 거다. 선생님이 완벽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선생님이 학생들을 통제해야 한다, 그런 건 좀 아닌 거 같다. 학생들이 나이가 모자라다고 해서 성년 미성년 그런 건 아닌 거 같구요.

배경내 : 질문 있는데 천안은 학생인권조례나 체벌금지 정책이 시행이 안 됐는데 천안은 체벌이나 이런 게 더 심각하다고 느끼시는가?

김\*\* : 저는 여학교고 체벌이 거의 없는데. 남학교는 좀 심하다고 들었다. 중학교 때도 심했고...

이\*\* : 저는 멀리서 무주에서 왔다. 이번 선진화 방안 발표된 거 보고 짜증나는 면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좀 기뻐다. 아까 사회자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접체벌이라는 폄수를 쓰게 된 거 자체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발전한 거 같다. '사랑의 매' 같은 거 운운하며 체벌 정당화하던 시절보다는 발전한 거 같다.

영상고 : 들으려고 왔는데 하고픈 말이 많아져서. 사회자 분이 학칙 서약서 이야기하지 않았나? 우리 학교가 미션스쿨이다보니 교장보다 교목선생님이 위에 있다. 교목 선생님이 종교가 무엇이나 종교 조사할 때 학교 짚릴까봐 기독교라고 적어 냈다. 기독교 조사서를 들고 오시더니 종교에서 기독교 안 쓴 애들을 왜 너네는 기독교라고 안 하냐고 말하더라. 그러면서 올해 온 친구들부터는 종교 서약서라고 해서 기독교 아닌 친구들은 못 들어온다고 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우리도 짤릴까봐 얘기도 못하고 있었다.

출석정지 얘기도 나와서. 그 친구들 중에 저희 학교가 좀 심하다. 이제 애들 못 때리니까 별점제랑 출석 제도를 좋아한다. 애들 다른 데 보내고 출석 못 하게 하고 유급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가 공부하면서 EBS 다크 학교는 무엇인가 보는데 마지막에 그러더라. 학생이 학교에 맞추게 하지 말고 학교를 학생에게 맞춰보면 학교는 달라진다고. 그래서 저희 학교가 선생님들이 저희와 소통,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해서 학생을 바꾸려는 법보다는 선생님들과 학생을 맞추려는 법이 나왔으면 한다.

김\*\* : 학교가 민주 시민을 양성한다는 곳인데 교장 입맛대로 교칙 개정을 한다는 게 저기 북쪽 동네 북한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시민을 양성한다면 절차부터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최\*\* : 아까 학교가 바뀌어야지 대학이 바뀌어야지 사회가 바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한다. 사회가 바뀌어야지 학교가 바뀌고 학교가 바뀌어야 학생이 바뀐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이런 데 안 오는 이유가 입시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입시제도는 대학이 만든 거고, 대학교는 대학교가 만든 게 아니라 사회가 만든 거다. 입시제도 학벌주의를 없애야 사회가 변할 수 있고 학생이 변할 수 있다. 고등학교도 입시제도가 없어져야 진짜 민주시민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나를 엘리트라고 외교 가는 친구가 이리더라. 그 친구 꿈이 검사인데, 저보고 학교 망신이라고 하더라. 학교 문제 학교장이 막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한다. 그런 애가 검사가 되면 얼마나 끔찍한 사회가 될까. 차라리 검사는 성적이 아무 중요성도 없다. 아무리 외국어 잘 하고 수학 잘하고 과학 잘 하면 뭐하나. 그런 검사는 우리나라를 망치는 데 도움 줄 뿐이지, 발전시키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런 아이가 진짜 검사가 되면 얼마나 끔찍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저는 사회가 바뀌어야 하고 검사 이런 거 뽑는 기준이 학업이 아니라 의식 수준을 보고 뽑아야지 아무리 의식이 좋아도 현실은 성적이 나쁘면 판검사 못 된다.

다른 분이 학교 선생님은 신이 아니라고 했는데 저는 신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에서는 적어도 그렇다. 한 마디만 하면 다 된다. 인쇄만 남은 상태에서 교장이 한 마디 안 돼, 하면 백지화됐다. 학생회 담당 선생님도... 아까까지 인쇄 해오신다는 선생님 어디 가셨고, 와서 안 된다고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신이라고 생각한다. 선생님이 떠들지도 않았는데 깎으셨다 하셨는데, 저는 학교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하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한다. 시끌벅적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말 한 마디라도 해야지 말 한 마디도 안 하고 있는 건 수업에 참여할 의지가 없는 학생이다. 그런 학생 수행 평가 깎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지내온 선생님들이 교장이 된다. 의식 있는 선생님들은 자기 의견 표명하다가 마찰 생기고 징계 당하고... 그런 사람이 교장이 되어야 하는데 아무 말 없이 교장 선생님 말 따르고 때리고 학생 협박하는 사람이 교장이 되는 거다. 그래서 학교가 악순환이 되는 거고... 교장 선생님이 너 사회 부조리를 보면 인생이 고달파진다.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 그런 선생님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훈화를 하고 체벌 금지 조치 이후에 자기가 제일 먼저 체벌 규정 없애겠다고 너네들 잘해야 한다고 하신 선생님이시다. 근데 제가 지나가다가 교장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는 걸 봤다. 그래서 왜 때리시냐고 따지니까 저보고 올라가라고 화를 냈다. 니가 무슨 영웅이냐고. 그럼 학생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하니깐 니 맘대로 하라고 큰 소리 치더라. 나중에 불러서는 그때는 교장 선생님 체면이 말이 아니어서 그랬다고 그러셨다. 체면이 교육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끝까지 밀고 나가시든지... 학생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하니깐 큰소리 치더니 나중에 갑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어서 그랬다는 등 말씀하시는데 교장 선생님 뽑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 제대로 의식 가진 교장 뽑는 게 아니라 얼마나 교과부 말에 잘 순종하고 교육청 말 순종하는지 갖고 뽑는 말도 안 되는 교장 뽑는 방식이다. 사회부터 바뀌고 교장 뽑는 방식부터 바뀌어야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

이\*\* : 오해하신 것 같아서... 맹목적으로 학생이 바뀌어야 한다고 한 게 아니다. 정규수업 줄이고 특색 가지고 교육을 먼저 바꾸자는 전제가 깔린 것이다. 입시 제도 변화에 대한 게 전제가 된 후에 학생이 바뀔 수 있는 여건을 줘야 한다고 말한 것.

최\*\* : 입시제도 때문에 아침에 빨리 불러들이고, 선생님도 아침에 빨리 오기 싫어하는데 교장 교감한테 욕 먹어서 어쩔 수 없이 부르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 급식 선생님이... 불평하지 마라 자기도 몇 십년 째 먹고 있다. 아침 점심 저녁 여기서 먹는다 그러지 말라고.

한날 : 입시 제도는 누가 바꾸는 건가?

최\*\* : 나라 구성원들이 바뀌야 한다.

이\*\* : 교과부에서 학교장 재량 이렇게 하는 게 쥐약이라고 생각한다. 입시제도 바꾸기 위해서라도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재량에 대해서 짧게 말하겠다. 저희가 바보는 아닌데, 교과부가 알면서 그러는 거 같다. 선생님과 학생과 교장이 이 세 관계가 민주적이라고 생각해야 이런 게 가능한 것이다. 저는 대부분 학교가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른 학교들 이야기 들어봐도 그렇고. 학교장 재량은 학교장 니맘대로 하라고 한 거나 다름 없다. 인권조례 신경 쓰지 말고 대학 잘 보내도록 하라고 한 거랑 다름 없다. 학교장 재량 시행되려면, 학생 자치가 완전히 독립하고 운영되어야 한다. 학생과 교장과 수평적 관계가 보장되어야 학교장 재량이라는 게 민주적으로 돌아갈 거다.

최\*\* : 아무리 수평적 관계여도 학교장한테 재량 주면 안 된다. 다 수직적 관계로 변할 수밖에 없다. 교장 선생님이 지금도 엄청 수직적이다. 한마디도 못 하게 하고. 말 하면 니 인생 고달파진다고.. 지금도 충분히 수직적이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학교장에게는 재량을 뺏어야 한다. 교과부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같다. 얼마 전에 백분토론 보면서 답답해 죽는 줄 알았다. 교총 회장은 말하는 거 보면 완전 지금 생각하는 꿈의 학교, 우리는 감히 생각해보지도 못한 학교를 말씀하고 계시더라. 단위 학교 재량을 주면 단위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가 잘 모여서 잘 이야기 할 거라고 하더라. 그거 듣고 학교 가보시라고 하고 싶었는데... 답답. 그 분이 진짜 몰라서 그런 거 같진 않다. 저희 학교도 교총 하는 분들 보면 인권적이지 않던데 별로, 교총 대표 분은 인권적인 이야기를 한다. 아무래도 교총 회장 분이 현실을 모르는 거 같다.

어쓰 : 토론회가 되고 있는데 여기 100분 토론은 아니다. 이런 자리 좀 가지면 항상 말씀하

시던 분이 많이 하시고 조용히 있으신 분은 2시간 3시간 한 마디도 안하고 그런나. 그러면 좀 재미 없지 않을까 싶어서 안 하신 분들 얘기도 좀 듣고 싶다.

이\*\* : 저희 학교는 방학 중에도 겨울방학도 1주밖에 안 쉬고 봄방학 중에도 학교를 나온다. 안 나올 자유가 있는 거 아닌가? 억압을 한다. 그 방학보충에 안 나간다고 결석이나 지각 보고를 받고 생활기록부 적는 란에다가 자기가 학교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온 것 같았다. 방학보충 출석 여부를 반영을 해서 적는 란에 적으라는 거. 그래서 화가 나서 문자로 얘기를 했다. 방학 보충은 자유 아니냐고. 선생님이 그건 너 자신과의 약속이니까 나와야 한다고 답장했다. 완전 웃기지 않나? 웃겨서 하루 종일 웃었다. 방학보충 나가겠다고 자신과 약속한 적도 없다. 학교가 강제로 한 약속이 저하고 한 약속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희 학교가 좀 웃긴 게, 두발규제가 거의 없어지는 거 같다. 머리 길이가 자유로워졌는데 치마 신발 아직 규제를 한다? 학교장 재량으로... 야자 빠지면 교감선생님한테서 엄마한테 문자가 온다. 왜 보내는지도 모르겠고. 학교장 재량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 거 같아서 화가 나고 그랬다.

고\*\* : 저는 일반 학교에 다니질 않아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서.. 말 안 하고 있었다. 저는 사실 내가 내 행동을 남이 제약한다는 걸 상상을 못했다. 여기 막 이런 데 와서 인턴 하면서 얘기 들으니깐 하라고 시킨다고 한다. 좋은 예인지 모르겠는데 만약 제가 성인인데 회사에 입사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제가 문제를 옆 사람 거를 베껴 썼다고 감독관이 때리거나 옆드려 뺏쳐 시키진 않는다. 왜 사회에서 통용되는 거가 우리한테 통용되지 않는 걸까 생각도 들었고 청소년이라고 해서 내가 당연히 통제할 권리가 있고 가르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저희 학교는 선생님이 간접 체벌 비슷한 거라도 했다면 학교가 뒤집어졌을 것이다.

심\*\* : 저 분이 학교에서 반항아로 찍히신 거 같은데 저도 굉장히 찍혔다. 상벌점제도 100점 퇴학인데 MB 옹호하는 선생님께 반기 들었다가 80점 받았다. 일제고사 반대한다고 시험지 서술형 답안지에 반대하는 글 썼다가 불려갔다. 입시제도가 위에서 바뀌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아래서부터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우리 입시생들이 전부가 수시원서를 쓰지 않고 수능을 보러 가지 않는다면 바로 입시제도가 바뀐다고 생각한다. 사회가 바뀌긴 굉장히 힘든 거 같습니다. 권력의 맛이 좋다고 하더라. 저도 예전에 꿈이 검사였는데 제가 검사가 돼서 비자금 50억 줄 테니까 이거 수사 한번만 하지 말아라 하면 저도 50억 받을 거 같다. 그러니 권력 맛도 모르는 우리가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 :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얼마 없을 거 같다.

심\*\* : 과연 우리 나라 정부는 입시제도를 없앨 거 같나? 프로야구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대호라고 몸무게 100몇킬로 나가는데 그 선수가 메이저리그 가서 도루할 확률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어쓰 : 그런 행동은 한두 명이 해봤자 그 한두 사람 인생 말아먹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많

은 사람이 함께 하는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고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거 같고... 말씀 안 하신 분들 야기하면 좋겠다.

김\*\* : 아까부터 계속 나와서... 좀 진지하게 말하고 싶었다. 이렇게 성토대회 나와서 얘기한 걸 바탕으로 학교에 친구들과도 얘기하고, 같이 친구들을 많이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위에 사람들이 바꿔줄 거라고 절대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가 스스로 인권침해 당한 거나 부당하게 받은 거에 대해서 항의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뒷담 좀 까주고 말하다보면 세상을 좀 바꿀 준비가 된다고 생각한다. 여기 사람들이 학교 안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다.

심\*\* :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도 될까? 저는 일단 인권에 대해 말하고 싶다. 인권은 자유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 자유의 힘은 엄청나다고 생각한다. 주체적으로 행동할 생각과 사고력을 준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사회를 가르치는 곳이다. 이 사회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 우리가 인권이 없고 자유가 없어서 능동적으로 행동하지 못한 우리가 사회 나가서 능동적 주체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 거기엔 때려줄 선생님도 부모님도 없다. 어떻게 능동적으로 이끌겠는가? 인권이 주체성과 능동성을 준다. 학교에서 나 자신을 학교랑 사회를 어떻게 이끌지 알려준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힘이 앞으로 사회를 능동적 주체적으로 이끌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한다. 인권이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밝은 사회로 이끌지 않을까 생각한다.

영상고 : 이런 게 조그맣게라도 더 많이 열리면 점점 커지고 사람도 많이 참여하지 않을까 싶어서 열어 주셔서 감사하다.

전\*\* : 요즘에 자기주도학습이라고 많이 선전하는데 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려면 필수 요건인데 입시제도에서 하는 걸로 왜곡된 거 같다. 사회에 필요한 인재가 돼야 하는데 입시에 맞는 인재가 되는... 자유가 많이 필요한 거 같다, 학생들에게.

어쓰 : 앞에서 너무 진지하게 말씀해주셔서 기에 놀릴 거 같은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한 마무리 멘트도 비슷했던 거 같다. 성토대회라고 했을 때 같이 모여서 짜증나는 얘기 했을 때 속 시원해지려고 와서 털어놓고 간다. 그런데 그렇게 와서 아시원해 말 잘했다 하고 돌아가서 끝내기보다는 오늘 얘기하면서 느꼈던 짜증이나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서 헐 이랬던 느낌도 잘 기억해서 앞으로도 좀 학교 많이들 다니시니까 학교 다닐 때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막간 광고를 하자면 이 개악 관련해서 내일 2시에 국회 의원회관 103호에서 2시에 초중등 교육법 개악 토론회를 연다. 시간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자리도 오셔서 말씀 들으시며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다.